

지역 소식통

고창군, 공설 장사시설 추석 휴무 없이 정상 운영

고창군은 올해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6일까지 늘어난 추석 연휴 기간(9월27일~10월3일)동안 모든 장사시설을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창군 장사시설은 3개소로 고창군 추모의집(봉안장), 고창 푸른솔자연장 무장 녹두솔자연장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추석은 추모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창군은 이달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정수 수목 전지작업, 벌초 등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울러 고창군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보다는 명절 전주나 명절 기간 중 분산하여 장사시설을 방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연휴기간 6일 내내 모든 장사시설이 정상 운영되는 만큼 추모객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분산해 시설을 방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개시

정읍시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칠보면 지역 독거 어르신 30세대에 밀반찬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는 이번 밀반찬 제공 서비스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활동가를 모집해 활동가로서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8일 칠보면에 거주하는 4명의 활동가는 심진강팀장인 복지관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한 밀반찬을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하면서 거주환경과 인부 등을 물었다.

곽창원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비스공동체를 발굴하고 조직화해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심덕섭 군수, 국회예산결산특위·상임위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는 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서삼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면담을 진행한 심 군수는 고창 황토에서 자란 우수한 농산물을 김치원료로 가공하는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200억원)'과 고창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178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심 군수는 고창 출신 4선 안규



백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고창갯벌의 우수성을 일컫는 '고창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사업(200억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이개호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

원회)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무장현 관아와 읍성 내 건물지 복원사업(42억원) △성내면·신탄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118억원) △고창신활력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40억원)' 등 국비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사업은 △삼사로 운곡습지센터 건립사업(80억원) △군유·대장·무장 하수관로 정비사업(182억원)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49억원) △대산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80억원) △교촌3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30억원) 등이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발전 디딤돌 되길"

부안-고창 지역농협 조합장, 상호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부안과 고창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일 부안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에는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 계화농협 이석훈 조합장, 남부안농협 최우식 조합장, 변산농협 김병식 조합장, 부안중앙농협 신정식 조합장, 하서농협 기세원 조합장 등 부안의 6개 지역농협 조합장을 대표해 김삼형 부안군지부장과 김원철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 대성농협 박윤규 조합장, 선운산농협 김기욱 조합장, 해리농협 김갑선 조합장, 흥덕농협 백영중 조합장, 고창부안축협 김시중 조합장 등 고창의 6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참석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부안의 6개 지역농협 조합장은 고창군에 300만원을 기부했고, 고창의 6개 지역농협 조합장은 부안군에 300만원을 기부했다.

김삼형 농협 부안군지부장은 "상호 교류를 계기로 부안과 고창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건전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안과 고창은 이웃사촌 농협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 이웃 지역 발전을 응원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의병장 민여운 선생 업적 선양 전국 학술대회 개최

22일 정읍시 연지아트홀서

정읍 의병장 민여운(?~1598) 선생 업적 선양 전국 학술대회가 오는 22일 연지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읍문화유산연구원(대표 안성덕)가 주최하고 (사)민족문화연구원(소장 김익두), 정읍학연구원, 전북대농업동물연구소(책임연구원 허정주) 주관으로 개최된다.

민여운은 임진왜란 당시 태인 고현내(현 칠보면) 출신인 정운근과 의병을 일으켜 김천·함안 전투, 진주성 2차 전투 등에 참전한 정읍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민여운의 업적을 학술적으로 드러내고 재평가하기 위



해 5명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광주교육대학교 김덕진 교수는 '호남 의병과 정읍'이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후 전남연구원의 김만호 책임연구원의 의병장 민여운 선생의 의병 활동과 그 역사적 의의, 김익두 민족문화연구소장의 정읍학의 입장에서 본 의병장 민여운 선생 관련 사료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전북대 사학과 박대길 박사의 '의병장 민여운 선생 선양사업의 방향과 방안'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유족대표 전 전북도교육청 민특기 사무관의 유족의 입장에서 본 의병장 민여운 장군 학술발표와 함께 개별 토론이 이어지고, 끝으로 이 발표들에 관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정읍의 대표적인 의병장 민여운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추석 명절 청소 종합대책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귀성객과 관광객, 군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추석 연휴 전까지 주요 시가지 대청소를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와 읍·면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은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환경사업소에 생활쓰레기 종합생활실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민원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은 추석 명절 연휴 6일의 기간중에 4일은 정상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만, 9월 29일과 10월 1일은 휴무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각 가정에 가지고 있다가 수거일에 맞추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김진우 환경사업소장은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밤 20시 ~ 익일 아침 6시)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7개 품목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본격 운영

전북 고창군이 고구마 등 7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기금을 본격 운영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2층 상황실에서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원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주요농산물 지원대상 품목은 고구마, 수박, 배, 배추, 고추, 양파, 무 등 총 7개 품목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6월 관련 조례

를 제정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요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의 지원대상은 관내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가로, 품목별 최저가격이 시장가격 이하일 때 그 차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한다.

최근 기후 변화, 품목 지역집중, 수요의 비탄력성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

성 증가와 농업경쟁비 증가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촌경제를 지탱할 최후의 보루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노형수 위원장은 "앞으로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을 통해 고창군의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추진으로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활발한 협조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제3분기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 회의 개최

정읍시는 20일, 김형우 부시장을 좌장으로 제3분기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했다.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은 시가 지역 내 연구기관과 지역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재)농축산유통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지원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한 연



구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기관 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시와 연구기관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정책개발을 충실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